

‘틀리다’ 아니죠, ‘다르다’ 맞습니다!



장 금 순 전무
바이엘코리아(주)

잡지나 신문을 보다 보면 아주 비슷한 두개의 그림을 놓고 서로 다른 부위를 찾는 심심풀이 문제가 있다. 요즘엔 인터넷 게임방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누가 먼저 찾는지하는 내기를 많이 한다. 제목을 보면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하는데, 아니죠. 다른 그림 찾기, 맞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집단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말(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문화 생활, 환경, 철학, 의식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대상이 그 만큼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것이며 아예 독립된 표현이 없다면 그에 대한 인식이 적거나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다른 나라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어휘 중에는 선배, 후배, 동기, 어른 등의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된 말들이 다양하고 자세히 구분되어 있다. 이는 우리 문화에서는 나이와 경력의 차이가 아주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존대어, 반말, 직위에 관한 말들이 아주 다양하다(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우는 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나 가치관, 관습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다양하다 못해 때로는 우리 자신들조차도 적절한 호칭이나 표현을 찾아 쓰지 못해 오해를 빚고 불필요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의도적으로 나쁜 표현을 하여 상대방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거나 분노하게 만들기도 한다.

서양 사람들은 선배 혹은 후배라는 단어가 없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선배나 후배라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같은 인격체로 동등하게 만나는 것이다. 영어의 프렌드(Friend)를 우리말로 친구라고 번역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20~30세 차이이면 아무리 잘 아는 사이라도 친구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40~50세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함께 가까이 지내면 프렌드라고 부른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프렌드라고 호칭한다.

그와 반대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대상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녹색과 청색이다. 푸른 하늘과 파란 하늘, 푸른 풀밭과 파란 들, 푸른 파도와 파란 바다, 녹색으로 켜지는 파란 신호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명히 녹색과 청색이 다를진대 순우리말에서 우리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경우가 있다. 바로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표현이다. 분명 '다르다'와 '틀리다'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 우리는 '다르다'라는 표현을 해야 할 때에 거의 대부분이 '틀리다'라고 말한다. 언뜻 생각하기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언어는 그 사용자의 의식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 즉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 더 나아가서 제거해야 할 대상인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항상 내 편 네 편으로 나뉘고 서로(선의의 경쟁이 아닌) 극악하게 싸워 상대를 제거해야 한다.

파란색과 빨간색은 서로 다른 색이다. 그런데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을 틀린 사람이라 하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을 틀린 사람이라 한다. 운전을 하다가 길을 천천히 건너는 사람에게 경적을 울리거나 그냥 밀어 부치거나, 그렇진 않더라도 속으로 욕하다가도 잠시 뒤에 자기가 차를 세우고 걸어서 길을 건널 때 밀고 들어오는 운전자들에게는 눈을 흘기고 욕을 하기도 한다. 머리카락 색깔이 검지 않거나 피부가 황색이 아니거나 코가 크거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사람이 아니라)놈이라고 부른다. 호남 사람과 영남 사람이 다를 수 있다. 역사와 자연 환경이 달랐고 말투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틀리다'라고 말하는 순간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사람, 고쳐져야 될 사람, 멀리해야 할 사람, 심하면 제거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르다'를 '틀리다'라고 하면 안된다. 다른 학교가 틀린 학교가 아니고, 다른 집안이 틀린 집안이 아니며, 다른 산업이 틀린 산업이 아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된다면 우리는 다양성을 잃게 되며 창조성이나 발전성을 잃을 것이다. 매일 똑같은 대상만이 보여지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이 될 것이다.

변하다. 우리는 또 이야기한다. 변했어! 이때 실망감이나 배신감이 따르게 된다. 변하면 달라지고, 다르면 틀린 것이 되니까.

우리는 우선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하려 할 것이다. 우리가 상황에 맞게 변해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발전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새로운 성취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 육계산업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법규나 규제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국제 관계 여건도 달라질 것이다. 석유가격 인상, 사료곡물가 인상, 수입육 증가, 각 업계들 내의 경쟁이 심화되고 관련산업들이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유지할 수나 있을까 할 정도로 거센 파도가 덮쳐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파도를 우리가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멈출 수 없는 거센 파도를 원망만 하고 있다가는 그 파도에 묻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파도를 타고 넘을 방법을 강구하고 실천에 옮겨 파도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변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파도타기를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